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휴식의 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 4:11)

특별 수요 권사 기도회

일시: 8월 2일(수), 9일(수), 16일(수)

시간: 12:40~13:10

장소: 갈릴리홀

【충현교회 5대째 출석 가정 확인】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대에 걸쳐 충현교회를 섬긴 가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8월 13일(주일)까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업로드를 위한 설명회

일시: 2023년 7월 30일(주일) 16:30 ~ 17:30

장소: 제1교육관 504호

참석 대상자:

- 전체 위원회 1~2명: 위원장 또는 서기 및 간사
- 전체 부서 1~2명: 부서장 및 아카이브 담당자

휴식의 적(賊)은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고참이나 동료도 아니고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면 쉬지 않는 것 혹은 안식을 누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 하는 것으로 안식의 적입니다.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순종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휴가 시즌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휴식을 누림으로 재충전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평안은 구원의 선물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충현교회 70년사 신청

교회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70년사가 발간 예정입니다. 교구, 차세대, 세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충현교회 성도님들 중에 70년사를 받아 보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국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배부해드립니다.

신청기간: 8월 6일(주일)까지 신청접수: 사무국 담당 김선영집사(내선 405)

차세대/세움 위원회 여름/가을 수련회 일정

청년1부	8월 10일(목)~13일(주)	성도교회 수양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롬1:16)
청년2부	10월 19일(목)~21일(토)	충현기도원	사랑, 그 분명한 증거 (요일 4: 11)
브릿지 공동체	9월 15일(금)~16일(토)	충현기도원	성벽재건 프로젝트 (느 1:1~11)
청년 3부	8월 25일(금)~26일(토)	충현기도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창 32:24~32)
신혼가정부	10월 중	충현기도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고후 5:18~19)
사랑부	8월 14일(월)~15일(화)	숲속의 아침	예수님 이야기 (마 16:16)
에바다부	8월 14일(월)~15일(화)	충현기도원	언약을 붙드는 믿음 (히 1:11)
소망부	10월 24일(화)	갈릴리홀	미정

2023년 제11기 중보기도 훈련생 모집

성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론과 실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1기 중보기도 훈련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넓혀 줄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자신이 없거나 기도가 절실한 이들을 환영합니다.

※ 중보기도훈련 수료 후 충현교회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누구나 (선착순 마감)

일시: 8월 5일~26일(매주 토요일, 4주간) 오전10시 ~ 12시

장소: 제1교육관 401호

신청마감: 7월 30일(주일)까지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중보기도훈련 링크로 바로 신청하기 →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시편 73:17-25)



150편의 주옥같은 시들이 묶인 시편 중, 시편 73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 감동을 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시 73:2-3)” 시인은 오만한 자를 질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한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시 73:4-12).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 73:13)” 마음속에 일어나는 실망과 질투로 말미암아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선한 일조차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에, 우리는 낙심과 실망을 주의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낙심에 빠지게 되기에, 성도는 소망으로 무장하여 낙심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던니 (시 73:16)” 악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시인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악에 대하여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로 갚아주시지 아니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도 갑작스러운 질투로 실족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질투로 인하여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낙심이 질투가 되어 고통의 자리로 추락하는 이 순간을 가리켜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으며, 발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성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성소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이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음에도 성소에 들어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곡점을 밟고 뛰어오르는 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 시인은, 레위인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전문가, 아삽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그의 삶의 모든 낙심과 질투,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총괄했던 아삽은 성소에서 경험했던 놀라움과 신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반전’을 노래했습니다. 구약신학자 ‘부버’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영역’이기에, 굳이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죄와 사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그의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 (엡 5:9)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그분의 거룩함을 맛보고, 깨끗함과 순전함 가운데 가장 복된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깨달음이 바로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깊어지는 기도 시간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의 세 가지 깨달음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첫 번째는 자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함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당당해보이고 거만한 악인들이었지만, 두어 걸음 후에는 넘어지게 되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1-22절)” 하나님을 거스르는 오만한 세력의 형통은 찰나에 불과함에도, 그 모습을 보며 실족할 뻔했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민낯을 시인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3-24절)”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은 두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는 ESV 영어성경에서 22-23절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이자,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번역한 표현인데, 대단히 훌륭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우매함과 무지함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기에, 주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잡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인과 마주하여 악수하듯 잡아주시는 모양이거나, 뒤에서 감싸주시듯 붙잡아주시는 모양이기에 학자들은 하나님께 오른손을 잡힌 사람을 가리켜 ‘왕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5절)”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다른 누군가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진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성소 그 후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 73:28)”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경험한 마지막 결론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적과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나를 건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요소의 연결고리가 “여호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비록 안전하다는 점에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니’와 같은 의미이지만, ‘피난처’는 잠시 잠깐 피하는 곳에 불과하기에, 그 곳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피난처를 가리켜,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사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의 오만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at is God Doing
In the Wicked World?

(Psalm 73:17-25)

Rev. Kyu Sam Han

In the Psalter in which 150 gem-like poems were collected, psalm 73 moves us by expressing his own shamefulness frankly. "But as for me, my feet had almost stumbled, my steps had nearly slipped.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Ps 73:2-3). The poet confesses his life almost stumbled because he was envious of the arrogant. It's because he was disappointed and discouraged when he saw the wicked did not perish but prosper (Ps 73:4-12). "All in vain have I kept my heart clean and washed my hands in innocence." (Ps 73:13). The poet felt like giving up good deeds in his life due to the disappointment and jealousy arising in his heart. Because we become spiritually dark when jealousy enters our hearts, we should be careful of disappointment and discouragement. Because anyone can fall into discouragement once while living, believers should be armed with hope in order not to stumble. "But when I thought how to understand this, it seemed to me a wearisome task," (Ps 73:16). The problem of wickedness often shakes our faith to the root. Like the poet, we can ask, 'Why on earth is God patient with the wickedness so long?', 'Why doesn't God requite the wickedness immediately?' We can almost lose our footholds because of sudden jealousy even while we are serving and ministering hard in the church, and we can also fall into a place of pain because of jealousy coming into our hearts outside of the church. The poet expresses 'my feet had almost stumbled, my steps had nearly slipped' by referring to the moment when discouragement becomes jealousy, falling into a place of suffering.

Sanctuary, the place where the holiness of God is manifested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v.17) Since the period when the author of the Psalm lived was a time before the temple was built, the sanctuary was the Tabernacle constructed at Mount Sinai. The poet who greeted the great change of jumping up from the turning point of his life owing to God's grace poured out to him when he entered the sanctuary even though he had almost stumbled was Asaph, a Levite, a professional psalmist praising God. Because of the amazing truth, through which God enlightened him in the sanctuary, all the discouragement, jealousy, and pain of his life disappeared. Asaph, who had supervised the whole of moving the ark of God, sang 'the great reversal of his life arising out of awakening God had given' on the basis of amazement and mystery he had experienced in the sanctuary. An Old Testament theologian, Buber, says 'The sanctuary of God is the domain where the holiness of God is manifested, so there is no need to limit it to physical spaces like a tabernacle or a temple'. To meet the holiness of God is the time when the light of creation and the life of God is shone or the moment of encountering the holy God personally. Asaph experienced the divine light of God, which defeats sins and death, shone brightly into his heart when he entered the sanctuary. Like Asaph, we also enter the sanctuary, experiencing the presence and holiness of God, and the moment when all the problems of life are solved. We can bear fruit of the light consisting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Eph 5:9), and the way to the Holy of Holies, which only the high priest could enter in the Old Testament Age, was opened through Jesus Christ. Every believer, who believes in and follows the cross of Jesus, stands before God face to face, tasting his holiness and realizing and knowing the most blessed knowledge and wisdom in cleanliness and wholeness. The divine awakening God pours out through the gate of prayer is the very privilege. The prayer time when we talk to God and listen to the voice of God deeply is the very time for us to be opened to God.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experience the blessed time of realizing the important truth through prayers.

Three Realizations in the Sanctuary

The first thing the poet realized in the sanctuary of God was his bare face. Looking at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and being envious of the arrogant, he realized his feet almost stumbled. Even though they were the wicked who looked pompous and arrogant in the poet's eyes, God showed him their future of falling after a few steps. "When my soul was embittered, when I was pricked in heart, I was brutish and ignorant; I was like a beast toward you. (vs.22-23)". Despite the prosperity of the arrogant power against God being fleeting, when he saw it, the poet confesses honestly that his lacking and weak bare face made his feet almost stumbled. "Nevertheless, I am continually with you; you hold my right hand.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and afterward you will receive me to glory." (vs 23-24)"

The second content that Asaph realized in the sanctuary is 'Nevertheless'. This is the conjunction that connects verses 22 and 23 in the English Bible ESV, and the expression that Martin Luther translated for the first time, which, I think, is a very splendid translation. It was because of the confession that entering the sanctuary, he realized at last that his brutishness and ignorance were like no less than a beast. 'Nevertheless,' there is no answer except the Lord, so he came to seek the Lord wholeheartedly. Hearing the poet's heartfelt confession, God held the poet's right hand with God's right hand. Because the appearance of holding the right hand with the right hand is the one that God faces the poet, holding his hand like handshaking, or holding him just like embracing him behind, theologians often translate by referring to the person whose right hand was held by God as "a man as precious as a king".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I desire besides you." (v.25)". The third and last, the poet makes a determination that he will truthfully offer his life to God. The first step for having good faith is the life to be near God. Asaph sings that to be near God is 'my blessing', not any other's blessing. That's why he doesn't express, 'Let's be near God.' I wish you and I profess the truth that being near God is a blessing.

The sanctuary, the life after that

"But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Lord GOD my refuge, that I may tell of all your works." (Ps 73:28)" The last conclusion that the poet experienced when he entered the sanctuar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o lead 'a life of being near God', however, you must not stay only there. You must lead a life of spreading the works of God, which is the next step. We should deliver to the world God's works and what God has worked for me, and the grace of God who rescued us from almost stumbling and falling, and made us realize. The ring connecting these two elements is 'the Lord GOD is my refuge.' It has the same meaning as 'The Lord is my rock.' in the sense that the life of being near God is safe. However, a 'refuge' is a place for escaping to just for a while, so, he emphasizes going out of there and moving again. Therefore, I refer to a refuge as 'a launching pad from which we go to the world with a calling'. Entering the sanctuary of God, we come to realize our own shortages and arrogance. Nevertheless, we can go near God because God holds us by his right han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blessing of being near God will bring us to the place of blessed faith that spreads the grace God has given us to the world.

영역·이울의



2023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이번 유년부 성경학교는 7월 21일~22일 1박2일로 충현교회에서 기드온과 함께 하는 “여호와와 살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마철 비 예보 중에 뽕뽕한 햇빛으로 응답하시고, 동역교회 11명 친구들을 포함해 150명의 학생을 보내주셨고, 이들을 돕는 수많은 손길들을 보내어주시며,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성경읽기 프로젝트!

7/3(월)~7/20(목) 줌/유튜브 실시간으로 저녁 7시에 만나서 함께 성경통독 핵심장을 읽으며, 여름성경학교 본문, 기드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2. 여름성경학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살짝 지루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 한번 집중해 보았다.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다음 성경학교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물놀이를 할 때도 너무나 재밌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여름성경학교일 것이다.

1-2 윤예검

영상이 재밌었고, 물놀이하는 게 재밌었어요. 친구들과랑 나팔을 만들고 횃불도 만들어서 살롱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었어요. 율동하는 것도 성경말씀 하시는 것도 재밌었어요!

2-2 이다솔

교회에서 1박2일한 게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밌었다. 마지막에 물놀이 한 것도 재밌었고 밥도 맛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3-8 고강서

유년부 친구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학년과 반에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과 자주 마주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 등의 활동이 많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성경학교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이번에 처음으로 1박 2일 성경학교에 참여하였는데 성경학교가 다가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걱정과 고민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과공부를 할 때나 이동할 때 잘 따라와 주고 부흥회 때 진심을 다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12 교사 진가영





2023 충현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살롬! 화창한 날씨 속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역교회인 산저교회와 행복한우리교회를 포함하여 충현초등부는 224여 명과 함께 1박 2일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온을 만나주신 여호와 살롬께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도 만나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감을 교회와 나눕니다.



교회에서 자는 건 처음이어서 기대됐는데,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코너 활동도 다 재미있어서 좋았고, 수영도 작년에는 수영만 해서 재밌긴 해도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영, 물총 싸움도 해서 재미있었어요. 특히 물총 싸움 때 바가지로 1과, 2과 친구들과 경쟁할 때 이겨서 좋았고, 선생님들한테 바가지로 물을 부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충현초등부 4학년 김혜린 학생)



교회가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여름성경학교를 많이 참석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물놀이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삼척 행복한우리교회 4학년 이동하 학생)



여름성경학교에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 많은 도움으로 친구들과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물놀이 수중작전도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고 싶습니다.

(충현초등부 5학년 김영찬 학생)

성경학교를 통해 진정한 살롬, 평안을 몸과 마음으로 재미있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살롬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큰용사라는 것에 감사했다.

(충현초등부 6학년 전한비 학생)



여호와 살롬의 은혜가 풍성했던 1박 2일의 여름성경학교를 안전하고 즐겁게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에만 만났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로 준비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늘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로 섬겨 주시는 초등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겨울성경학교도 기대돼요!!^^

(충현초등부 이예진 교사/학부모)



“그(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6)” 이번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지만 당연하게도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주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 교역자 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참여했지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초등부 박상준 교사)



지난 7월 21일 금요일 오후 시에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충현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찬양 페스티벌은 '충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찬양'이라는 모티브로 시작되어 총 29팀이 참가하였고,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페스티벌에서 충현교회 최초로 경연 형식을 통해 상금을 걸고 행사를 진행한 것은 숨겨진 찬양인재들을 찾아내고, 나아가 다음세대의 찬양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본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심사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8팀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초등부 'SAY' 팀이 금상을, 중등부 '마하나임'팀과 선교위원회 '보스트 워십'팀이 은상을, 그 외 다섯 팀(녹도니, 로뎀, 윤지현, 이지현, 미녀6총사)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였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 페스티벌을 계기로 충현의 찬양이 더욱 새롭고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 페스티벌



충현교회 70주년행사로 '찬양페스티벌'이라는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어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지만 이런 찬양 행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각 팀들이 개성있게 자신들의 모습으로 찬양 페스티벌에 참석하였고, 그들의 찬양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충현교회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나아가길 원하고,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충현의 모든 성도가 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0교구 구민자 집사



단선율의 음악이 주는 정갈함과 깊은 품미도 좋아하지만 다양한 음색의 악기가 여러 가지 화음으로 어우러지는 교향악이 주는 풍성함과 감동 또한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 찬양제가 그런 풍성한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세대가 각자의 음색과 음역을 존중하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되어가는 모습 속에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가장 멋진 교향악이 아닐까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충현에 발걸음 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연합하여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성덕 목사



저는 이번 교회 70주년 찬양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한 SAY팀의 임예슬(Y)입니다. 저는 서진이 아인리와 같이 초등부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찬양대에서 부르던 찬양과 다르게 이번에는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마음만 가지고 준비했고 친구들과 같이 하니 즐거웠습니다. 본당에서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기뻐 받아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가사처럼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며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찬양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SAY - 금상팀 > 초등부 6학년 임예슬

저는 이번에 충현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슬람 인구가 약 87%나 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그곳에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무슬림 친구들과 사이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이번 찬양 페스티벌에서 부를 찬양을 선곡하던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의 원곡이 인도네시아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슬림이 98%인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모님 생각도 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삶 속에서 변함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귀한 찬양을 통해 귀한 추억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에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Terima kasih Tuhan!

< 보스트 워십 - 은상팀 > 청년부 김다엘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시 92:1~3) 지난 찬양페스티벌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는 시편기자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세대와 장르를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고, Worship Dance에서 연주와 찬양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온 맘으로 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충현교회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창하 안수집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자료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역사 전시관 개관)
성도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준비팀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전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시할 시 기증자 이름으로 전시합니다.)

수집자료: 교회 행사 사진, 인물 사진, 교회 실물 자료(주보, 책자, 소품 및 동영상(비디오테이프) 등)

수집기간: 7월 16일(주)~ 7월 30일(주) 까지

문의: 기획위원회 이정진 집사(010-3203-8308)/임부루 집사(010-3237-0766)

총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총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여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사랑부 봉사자 모집

발달장애 성도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사랑부 교사

내 용: 찬양·울동, 행정교사 시 간: 주일 10:30~12:30 장 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2. 사랑부 여름수련회 헬퍼

날 짜: 8월 14일(월)~15일(화) 장 소: 양평 숲속의아침 문 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총현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차량등록 및 차단기 설치 계획

- 7월 9일(주)~16(주) 전교인 차량등록(교구 및 부서, 엑셀파일로 사무국 제출)
- 번호인식 차단기 설치진행(7월 24~25일, 8월 3~4일)
- 8월 첫째주 시범운영
- 8월 둘째주 총현 주차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은퇴안수집사실 이전 감사예배

일 시: 7월 30일(주일) 12:10 장 소: 본당 안수집사회실 옆 (구) 중보기도실

금주 단기선교 및 동역교회 파송

	선교 및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일본 1팀	일본 도쿄	강남석 안수집사 외 10명	8월 2일(수) ~ 8월 7일(월)
8교구 1팀	충남 서산 해성교회	박미혜 권사 외 9명	8월 4일(금) ~ 8월 6일(일)
8교구 2팀	전남 함평 운산교회	문연식 안수집사 외 9명	8월 4일(금) ~ 8월 6일(일)

예배 담당(8/2~8/6)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8/2	수요 I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1~3) 김유석 목사	이기영	최지숙
8/4	금요일집회	원수에게 보여준 사랑 (롬 5:6~11) 한규삼 담임목사	전영재	
8/6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호 2:23)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권혁근 박영환	박노익 신현욱 양기수
	주일찬양	더 나은 본향 (히 11:13-16) 김주한 목사	문진호	김배규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7/31~8/6)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31 (월)	김상래/이찬재	렘 12:7-17	전교인
1 (화)	한규삼/전성욱	렘 13:1-14	전교인
2 (수)	박성덕/심재천	렘 13:15-27	전교인
3 (목)	이성환/최한태	렘 14:1-12	전교인
4 (금)	이기영/송정섭	렘 14:13-22	1교구
5 (토)	강성은/강성은	렘 15:1-9	전교인
6 (주)	이다현/이다현	렘 15:10-21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박성덕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2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12교구(트러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269	방도운	영아부	
2	1273	신예성	영아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69	라즈개롱	외선부	
2	1277	장세라	기본과정	한미현
3	1279	박수연	기본과정	장세라
4	1280	박미라	에바다부	정혜진
5	1285	프란체스카	기본과정	
6	1286	정윤환	기본과정	
7	1288	이완형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69	김수진	청년1부	
2	1198	김상은	청년1부	
3	1227	김혜찬	청년1부	김혜주
4	1271	김광희	청년2부	
5	1287	장한민	브릿지	

별 세

- 김영식 타교 은퇴권사(김호석 무임 안수집사의 모친·김수경 무임 권사의 시모, 1교구)/23일 별세, 25일 장례
- 이귀분 타교 성도(장연순 집사의 모친, 1교구)/26일 별세, 28일 장례
- 배옥인 전도사(9교구)/26일 별세, 28일 장례
- 궁희복 은퇴권사(7교구, 고경호 집사의 모친·김은주 집사의 시모, 3교구)/27일 별세, 29일 장례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행정위원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전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성임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서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선교위원회	강성은 11교구	김주한 12교구	이성환 7교구	권혁근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성훈 8교구	김유석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홍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강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경화